

경영저널

표지이야기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의 밤을 고즈넉하게 빛내는 안압지의 야경. 동북아 최고의 선진 문명국이었던 신라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접견장이었던 안압지는 현재에도 수많은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COVER STORY** 경주시 특집
- 도약하는 경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관광의 도시 경주** 2천만 관광객 사로잡을 독특한 관광콘텐츠
- News Wide** 영국 데번햄스 백화점 대구 개점 앞두고 촉각
- 경영Story** 긍정의 힘, 마쓰시타 코노스케
- Hot Issue** 택시법 논란 장기화 조짐, 해법은 없나
- Dream Interview** 박우용 노무법인 혜음 대표공인노무사
- 초대석** 김창규 법학박사·시인
- 음식명가** 한우요리 명가 '해덕한우'

CLICK

e-비즈니스

월간 경영저널 포털사이트와 동반성장할 쇼핑몰 입점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월간 경영저널이 올해 하반기 정보와 뉴스, 쇼핑몰을 결합한 **영남권 최대 포털사이트**를 오픈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경제계 뉴스, 각계층의 인터뷰, 부동산과 경매정보 등이 망라되고,
영남지역의 농특산물과 특화된 지역 기업체의 제품을 포털사이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이 필요한 회사, 제품 판매 경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회사,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셀링파워가 약한 회사, 웰빙 트렌드에 맞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모두 입점이 가능합니다.

쇼핑몰 입점 업체에는 전문가 경영 컨설팅과 온-오프라인 홍보 등
원스톱 서비스 혜택을 드립니다.

쇼핑몰 입점 문의 :
전 화. 053-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 07** **청호(靑湖)칼럼**
이진구 |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 08** **Cover Story**
최양식 경주시장
전통문화와 창조적 시도가 함께 하는 오래된 첨단미래도시

- 12** **도약하는 경주**
실크로드를 넘어 유럽으로,
경북의 위대한 문화적 도전이 시작된다

- 15** **관광의 도시 경주**
경주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2천만 관광객 사로잡는다

- 18**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I**
대구의 무상급식 현주소와 합리적인 대안

- 20** **News Wide**
영국계 백화점 데벤함스 대한민국 1호점
대구 상륙 앞두고 촉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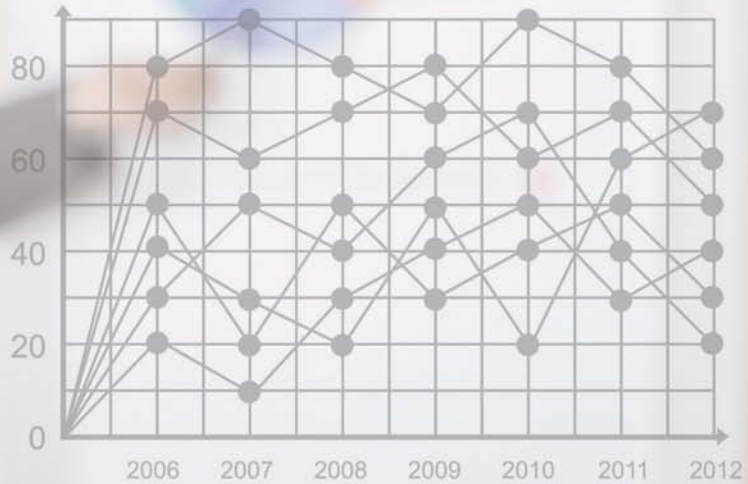
- 22** **경영Story**
긍정의 힘, 마쓰시타 고노스케

- 24** **Hot Issue**
택시법 논란 장기화 조짐, 해법은 없나

- 29** **윤기태의 Tax&Accounting**
사업자의 스타일과 회계 · 세무이야기



www.**KEPI**.or.kr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식경제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한 | 기 | 연

- 30**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
 농촌지역 폐교실태와 바람직한 활용방안
- 33** **칭찬합시다**
 양시창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계장
- 34** **현장**
 포항시 감사나눔연수원을 가다
- 38** **지자체가 된다**
 친환경농업의 선봉, 포항시농업기술센터
- 41**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I**
 대한민국에서 즐겁고 활기찬 노년 보내기
- 44** **Dream Interview**
 박우용 노무법인 혜음 대표공인노무사
- 46** **초대석**
 김창구 법학박사 · 시인
- 48** **음식명가**
 한우요리 명가 '해덕한우'
- 51** **지역소식**



54

경영저널 통권 제43호

발행인·인쇄인	이진구
편집장	백재호
취재	배준수
사진	김원현
편집디자인	임선정
편집위원	홍순대, 손지강, 이광희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인쇄처	신홍인쇄
발행처	www.경영저널.com
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본부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번지 203호
대표전화	대구 053766-1368 FAX 054766-1356 안동 054823-2828 FAX 054823-2827
등록번호	대구라07691
창간	2007년 11월 5일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구독 및 광고문의	053766-1368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48,000원
 정가: 5,000원
 예금주: (주)경영저널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 입금 후 정기구독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053766-1368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 및 월간지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 및 기사의 저작권은 본사에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무단전제, 복사를 금합니다.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706-84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영저널 편집 제작국 독자 기고팀 담당자 앞
 이메일 k_journal@daum.net
 전화 053) 766-1368 FAX 053) 766-1356

경남 2013 대가야 체험축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Daegaya Experience Festival

1500년의 기다림
대가야의
Mountain fortress of Daegaya

산성



4월 11일(목) ▶ 14일(일)
장소 | 대가야박물관 및 고령읍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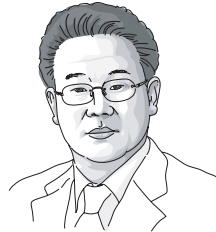
검색창에 대가야체험축제 를 쳐보세요

<http://fest.daegaya.net>

문의 054)950-6424, 6111~2

주최 | 경상북도 고령군 주관 | (사)대가야체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관광협회,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거창군·고령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

스토리텔링의 힘



이진구 | 경영저널 대표이사 · 발행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스토리텔링을 빼놓고서는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풍이다.

스토리텔링의 천재로 불리는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언더독(싸움에서 진 개)’ 스토리가 눈에 띈다. 스스로가 약자라는 스토리를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영리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함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막강한 골리앗이지만 사용자들의 니즈(needs)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맥도날드는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가격에 버거와 스낵 및 디저트 등을 제공하는 ‘행복의 나라 메뉴’를 선보였다. 메뉴에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치열한 경쟁과 경기 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햄버거만 파는 곳이 아닌 행복한 순간을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는 희망을 담아 호응을 얻었다.

지역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다. 대구 남구청은 최근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앞산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한 책자 ‘산(山), 대왕을 품다’를 발간했다. 앞산 자락길을 남구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앞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한 결과물이다. 발간된 책자에는 고려 왕건이 927년 9월 공산(지

금의 팔공산)에서 견훤의 백제군에게 대패한 뒤 홀로 탈출해 앞산으로 숨어드는 장면에서부터 앞산의 화전민인 어리노인과 그의 딸 호류를 통해 자연과 농사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에 대한 참사랑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책자에 담겨 있다.

지난해 6월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중구 근대골목도 스토리텔링을 입혔다.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혹은 모르고 있었던 소중한 우리의 대구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근대골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힘은 답사객들을 강력하게 끌어모으고 있다. 근대골목은 이미 또하나의 대구 브랜드가 됐다. 이 모두가 스토리텔링이 힘을 발휘한 산물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거창한 미사여구가 담겨있지 않아도 이웃이나 동료와 공감할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와 행복을 원한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줬던, 어머니가 읽어 줬던 전설이나 동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창조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 내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유산에, 음식에, 관광 자원에, 역사에 저마다의 이야기 옷을 입히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기업의 영업행위에서도, 사교육시장에서도 스토리텔링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가 되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치밀하고 짜임새 있는 이야기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마력을 지닌 스토리텔러(Storyteller)가 돼보자. 어렵지 않다.



| 인터뷰 | **최양식**
경주시장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경주시대 원년을 맞아 미래 첨단과학도시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2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이스(MICE)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FTA의 파고도 거뜰히 이겨내 웃음이 가득한 농촌을 품은 미래희망도시로 뻗어가고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희망도시 경주를 가꾸어가고 있는 최양식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Profile_

- 1952년 경주
- 대구고
- 중앙대 행정학과 졸업
- 영국 리버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백석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
- 행정고시 합격
- 총무처 법무담당관, 국외훈련과장 인사과장
- 청와대민정비서실 행정관
- 주 영국대사관 참서관
- 행정자치부 제1차관
- 경주대학교 총장

전통문화와 창조적 시도가 함께 하는 오래된 첨단미래도시

Q 한수원이 지난 1월 핵심 조직인 건설본부를 경주로 이전하면서 한수원 경주본사 시대의 막을 올렸습니다. 한수원 경주시대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접목시킬 전략은 무엇입니까.

A 한수원 본사 사옥이 양북면 장항리 일대에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예정보다 1년 앞당긴 완전 이전을 통해 한수원 경주시대를 알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도 한수원 직원 거주 공간 마련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216세대와 원룸 및 오피스텔 다수를 임대 가능토록 했고, 700여명의 추가 이전을 위해 시내권에 2개 단지의 직원주택을 분산 건립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 본사의 완전이전으로 동반기업이 상주할 수 있는 녹색기업 복합단지를 조성해 40여 업체 1천여명이 상주하는 기업단지로 육성, 경주가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도시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미래 경주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경상북도의 원자력클러스터계획'과 연계해 '원자력 수출산업단지'

와 '국제원자력 기능인력 교육원' 등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일자리 창출도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A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선 공약사항의 하나로 등장할만큼 국가적인 주요과제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주)경동바이오테크, 아벤고아 등 75개 기업을 유치하고,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강동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건천2 일반산업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 외동지역 자동차 산업, 천북·안강지역 기계 철강 산업, 건천지역 양성자 가속기 산업, 동경주 지역 원자력 산업단지로 24곳 987㎡를 조성해 중소기업 80개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Q 8월31일 개막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의 의미와 향후 전망되는 성과를 말씀해주십시오

A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를 주제로 한 최초의 박람회로써, 1998년부터 2011년까지 6차례 열렸습니다. 총 97개국에서 5만6천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적관광객 1천만명, 외국인 108만명이 참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화엑스포라고 자부합니다. 2006년 캄보디아에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해 아시아 역에 또 하나의 문화 한류 붐을 일으켰으며, 올해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아시아를 뛰어 넘어 유럽의 문화와 만나려 합니다.

이번 엑스포는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라는 주제로 경주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할 25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며, 터키는 물론 세계 문화와 융합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경주시에 사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수교 56주년인 한국과 터키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이며, 교류의 가장 핵심인 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수출 등에 새로운 물꼬를 트며 신 한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관광객 2천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전략과 더불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A 새로운 관광콘텐츠 마련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업을 통해 작년 1천100만명에 이어 올해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포석정의 유상곡수 재현, 나정의 팔각건물, 동궁과 월지의 정전 회랑 복원, 황룡사 9층 목탑의 1/10 모형제작, 경주읍성과 목월생가 복원 등을 통해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신라의 향기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4월 벚꽃축제, 8월 세계피리축제 등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동부사적지 내에 비단벌레 전기자동차를 운행과 보문단지 입구 식물원과 화조원으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왕사지에서 월정교까지의 '신라왕의 길'

보문호반 산책로, 추령재에서 감은사까지의 '신문왕호국행차 길' 등과 연계해 작년에 개통한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의 걷기 열풍을 이어 갈 예정입니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2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교촌 한옥마을이 지난해 조성이 완료돼 3월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2005년 시작된 월정교 복원 사업도 교각 및 누교 복원을 마쳤습니다. 또 신라의 왕궁 터인 월성을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왕궁의 모습을 상상 할 수 있도록 영상물 등 홍보자료를 전시한 '월성 홍보관'을 옛 인왕파출소 부지에 열었습니다. 분황사~황룡사지~월지~월성~동부사적지~월정교까지 주로 걷기나 자전거로 유적답사를 많이 하는데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나무데크 설치와 황토포장이 된 '임해로'를 완성했고, 금장대 중창과 양동마을을 꾸준히 정비해 세계유산의 도시, 경주의 명성을 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Q 내년이면 경주화백센터가 준공됩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경주 마이스산업의 축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A 경주는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79년 보문관광단지에 '육부촌'이라는 최초의 국제회의시설이 건립돼 PATA 총회 등을 열었고, 2011년 G20회의, 지난해 APEC교육장관회의, 국제펜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보문관광단지에는 국제수준의 호텔컨벤션 회의장을 640개 보유하고 있어 1만명 규모의 국제회의가 동시에 개최가 가능하며, 특급호텔 7개와 종합관광호텔 14개, 휴양콘도 8개에서 3천250명이 동시에 숙박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컨벤션뷰로를 설립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컨벤션뷰로는 단순히 화백컨벤션센터의 마케팅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을 전세계에 마케팅하는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주시는 화백컨벤션센터 준공과 동시에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받아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도시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 최양식 시장이 표주박을 담은 물통을 들어보이며 석탈해왕과 반월성 호공에 얽힌 사연을 설명하고 있다.



△ 최양식 시장이 통일신라시대 때 제작된 차륜형 각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Q 경주시민들의 노후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A 먼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원전 문제로 인해 불안과 걱정을 갖게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전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국가 전력산업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아무리 국가적 대의를 위한 명분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원자력정책은 안전성 확보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중앙정부, 한수원이 절실하게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전 안전성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뜻을 수렴해 중앙정부와 한수원에 강력히 대처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올해 시정키워드에서 '희망'과 '행복'이 눈에 띕니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행복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한 복안을 소개해 주십시오.

A 나눔으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채움으로 행복공동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어르신과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등 맞춤형 복지시설을 갖추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복지관과 서면행정복합타운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예방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복지 지원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빠르게 정착하도록 한국어 교육과 친정보내기운동, 합동결혼식 등을 통해 지구촌 한 가족의 사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및 힐링센터가 올해 5월 준공되면 지역의 풍부한 대학 의료진과 교수들이 경주시민들에게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경주가 천년역사의 문화유적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담 | 백재호 편집장
정리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 | 김원현 기자



△ 엑스포 기간 중 한국과 터키의 길놀이가 펼쳐질 이스탄불 최고 변화가인 탁심광장.



△ 엑스포 개최식과 폐막식이 열리게 될 성소피아성당 광장



실크로드를 넘어 유럽으로, 경북의 위대한 문화적 도전이 시작된다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8월31일 닷 올려
유럽 등 50여개국 참가 9개 분야 25개 프로그램, 한류돌풍 재점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이 오는 8월31일부터 9월22일까지 23일간 터키 이스탄불 일원에서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란 주제로 열린다.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전역이 엑스포의 무대가 되며, 고대 동서양의 문물이 오갔던 실크로드의 출발지와 종착지인 경주와 이스탄불이 문화의 길을 통해 세계와 만나고 함께 꿈을 펼쳐나가는 축제의 향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킬러콘텐츠는 한국문화관

이번 엑스포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5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엑스포 조직위는 전시와 공연, 영상·체험, 특별행사 등 9개 분야에서 신라와 경주, 경

북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25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250만 관람객에게 선보인다. 아시아와 유럽이 어우러지고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각인되는 문화축전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조직위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핵심콘텐츠는 한국 문화관이다.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터키의 만남과 동행을 비롯해 한국 문화의 정수를 체험토록 준비 중이다. 공연 분야는 선덕여왕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신국의 땅, 신라’와 ‘비보이 퓨전공연’ ‘태권도시범단 공연’ ‘한·터키 전통패션쇼’ 등이 열린다.

영상 분야는 ‘한국영화축제’가 열려 한국 영화 40여편이 상영되며, 한류 배우 팬 사인회가 개최돼 한류 붐 확산에 나선다. 한국 최고 인기가수가 총출동하는 ‘K

팝' 공연도 마련돼 한류 열풍을 재점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세계 30개국의 민속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실크로드 바자르', 20개국이 각 나라의 전통미를 뽑내는 세계민속공연축제도 진행되고, 한국기업 홍보관과 경상북도·경주시 홍보관도 함께 운영된다.

특이한 점은 행사 개최지가 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전역이 엑스포의 무대가 된다는 것이다. 개막식과 폐막식은 비잔틴제국 최고의 건축물인 '성소피아 박물관' 앞에서 8월31일과 9월22일 각각 열리고, 한·터 전통패션쇼는 화려함의 극치로 손꼽히는 '돌마바흐체 궁전'을 배경으로 한다.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명에 달하는 이스탄불 최대 번화가 '탁십광장'에서는 양국 전통 퍼레이드가 열려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문화의 유럽 진출 교두보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차로인 이스탄불과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우리 문화와 산업의 유럽 진출과 더불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슬람문화의 중심도시인 터키와의 문화교류를 통해 유럽진출의 교두보와

중동공략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엑스포 개최 타당성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터키 국민들의 한국 인지도가 엑스포 개최 직후 21.5% 올라가고 터키인들의 방한 관광객 수가 향후 10년간 2만2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대 터키 수출 증가와 터키의 방한 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입이 10년간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효과 외에도 세계사적으로 흔치 않은 천년고도인 경주와 이스탄불의 문명사적 의미 재조명과 새로운 융합이 가능하고, 관광도시 경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럽 무대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연간 3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문명의 용광로 터키에서 시작되는 경주와 이스탄불의 위대한 문화적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가 감탄할만한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번 엑스포에서 부각시켜 터키인과 세계관광객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사진제공 | 경주시



△ 지난 1월 터키 이스탄불시청에서 열린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공동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공동조직위원장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과 카디르 토티쉬 이스탄불 시장이 위촉됐다.

경주 양남 두상절리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한 부채꼴 모양의
경주 양남 주상절리로 오세요~





△ 선사시대 인류가 남긴 최초의 기록인 암각화가 있고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의 필수 여행지로 통했던 금장대의 복원 전경.

경주만의 독특한 콘텐츠로 2천만 관광객 사로잡는다

신라 천년의 숨결 간직한 관광명소, 국내 최초 사계절 체험형 버드파크 등 풍성

관광의 도시 경주는 지난해 1천1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았고, 올해는 2천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국내 최초로 조성된 전천후 사계절 체험형 버드파크를 비롯해 황룡사 마루길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등의 걷는 길,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궁식물원 등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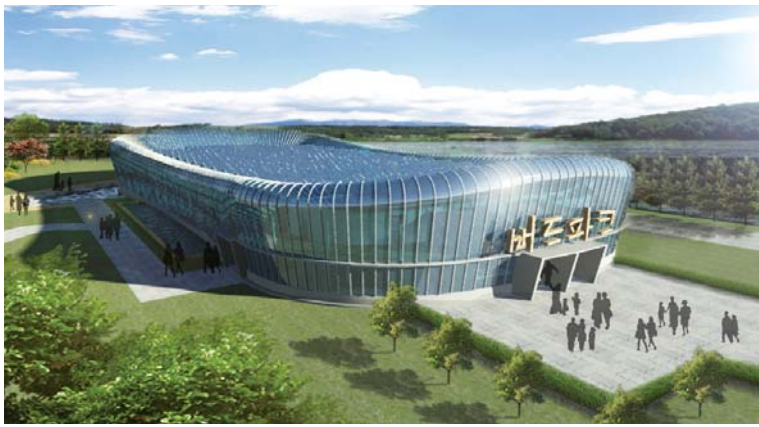
더불어 찬란했던 통일신라의 월정교를 옛 모습대로 복원하는 등 천년고찰 경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숨결들을 관광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예정이다. 관광 도시 경주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소개한다.

신라의 숨결 그대로

2008년부터 5년간의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그 모습을 드러낸 통일신라 최전성기의 화려

한 궁성 교량 월정교는 경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다. 길이 66m, 높이 9m의 웅장함을 간직한 월정교는 서기 760년 경덕왕때 축조됐으며, 통일신라 최전성기 절정기의 건축기술과 토목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누각형태의 다리 양쪽 문루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월정교 복원이 최종 마무리되면 주변 한옥촌, 월성 등과 연계된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정교와 더불어 경주의 관문인 서라벌대로에 있는 나정교경관조형물인 '서라벌 치미'도 빼놓을 수 없다. 황룡사터에서 출토된 장식 기와 치미(일명 망새)를 재현한 것으로, 치미는 우리 조상들의 응지와 기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t의 청동과 14t의



◁ 경주버드파크 조감도, 오른쪽은 복원된 월정교.

석재로 만들어진 서라벌 치미는 야간 조명을 받으면 더욱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등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비감마저 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9월 복원공사를 마친 금장대 또한 조선시대의 시인묵객들의 필수 여행지였고,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기도 해 경주의 새 명소가 되고 있다. 금장대는 형산강 지류인 서천과 북천이 합류하는 예기청소(靑沼) 앞의 작은 산봉우리에 세워졌으며, 뛰어난 주변 절경 때문에 신라시대 3기 8괴(3가지 기이한 것과 8가지 괴이한 현상)의 하나로 꼽혔다. 이번에 복원한 금장대는 신라시대의 건축양식을 적용하기 위해 안압지의 건물을 토대로 건립했으며, 단청은 신라시대의 유물을 관찰해 문양과 색을 재현했다. 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단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역사 체험하며 걷는 길

지난해 6월 1.7km 구간에 걸쳐 완전 개통한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은 경주의 새로운 해안관광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천연기념물 536호로 지정된 양남 주상절리군은 마그마가 다양한 방향으로 냉각되면서 생긴 부채꼴 모양의 절리(節理·암석의 결)가 장관을 이룬 독특한 지질유산이며, 이 주상절리군을 테마로 만든 파도소리길은 다양한 조경과 산책로, 트레킹 구간 등으로 구성돼 있어 관광객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또, 인근 월성원자력본부가 아름다운 읍천항을 만들기 위해 2010년부터 조성한 '읍천항 갤러리'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읍천마을의 건물 담벼락에 늘어선 150여종의 화폭은 읍천항 등대와 함께 새로운 추억거리를 선사한다.

분황사내거리에서 박물관과 월정교를 잇는 보행자 전용 관람로인 '황룡사 마루길' 또한 역사도시 경주의 새로운 문화탐방로로 각광을 받고 있다. 황룡사 마루길에는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길이 1천 472m, 폭 2.2m의 목재마루를 비롯해 황토포장과 조명등, 쉼터 등을 설치했으며, 분황사-황룡사지-동궁과월지-월성-박물관-월정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명품 관람로가 되고 있다.

경주만의 이색 콘텐츠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인 안압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하고자 보

문관광단지 입구에 조성되고 있는 '동궁식물원'은 사계절 꽃과 과일을 볼 수 있는 화려함과 폭포 등을 이용한 동적인 요소를 가미해 국내 다른 식물원과의 차별화가 포인트다. 동궁식물원은 2천353㎡ 부지에 가로 61m, 세로 30m, 최고 높이 16.6m의 신라시대 한옥구조 형태로 건립되며, 야자원, 관엽원, 화목원, 수생원, 열대과수원 등 5개 테마정원으로 아열대 식물 약 400종 5천500본이 식재된다. 식물원 주변에는 휴게 및 홍보전시관으로 활용할 부속시설(파빌리온)이 건립되고, 음악분수, 슌바꼭질 정원, 일만송이 토마토정원 등 관광객 체험 및 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동궁과 월지(안압지)와 관련해 삼국사기는 '문무왕 14년(674)에 궁내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화초와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와 문무왕 19년(679)에 '동궁(東宮)을 창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국내 최초 전천후 사계절 체험형 버드파크도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올해 6월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버드파크 조성사업은 경주시 최초로 시도되는 새로운 방식의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110억원이 투입되며, 농업테마파크 내에 5천㎡ 규모의 새둥지 형태의 유선형 유리온실과 야외전시·체험시설이 건립된다.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조원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버드파크에서는 펭귄, 플라밍고, 앵무새 등 약250종 900수, 초본류 3천본, 비단 잉어, 열대 수족관, 파충류를 전시하고, 펭귄과 앵무새 등 상시공연으로 관광객들이 직접 만지고 즐기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제공 | 경주시

201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13. 2.28(목) ~ 3.3(일)

경북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

4일간

청정 미래 울진!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집행위원회
- 후원 : 후포수협, (재)한국지역진흥재단, 경북붉은대게통발협회, 소형선박협회, 후포청년회
- 축제정보안내 (054)787-1331

대구의 무상급식 현주소와 합리적인 대안

3월부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무상보육시대가 열린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가정에서 양육해도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대구는 지난해 주민조례 발의를 계기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기도 여전히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아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재정부담이 큰 무상보육은 수용하면서도 같은 보편적 복지서비스인 무상급식만 유독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도입을 미루고 있다.

대구 무상급식의 현주소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봤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

2011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한정된 재원의 소요 비용과 차별의 문제다.

전면 무상급식 찬성론자들은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상급식 혜택을 주면 해당 아동들에게 소위 ‘눈치밥’을 먹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0년 서울시의 의무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아이들에게 눈치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도 의무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대기업 총수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한다.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 정책은 예산과 사업이 일단 수립돼 추진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으며,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교육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8대 광역시 무상급식 시행학교 현황

(단위 : %)

구 분	무상급식 비율			
	초	중	고	계
서울	92.9	99.2	0.0	71.9
세종	100.0	100.0	0.0	85.7
부산	97.7	0.0	0.0	47.8
인천	100.0	0.0	0.0	48.6
대전	100.0	0.0	0.0	49.0
광주	100.0	100.0	0.0	77.8
울산	52.1	9.8	0.0	29.3
대구	9.7	4.9	1.1	6.5

※ 자료 : 유기홍 의원 국정감사료, 2012년 4월 기준

무상급식 확대는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현안사업 중단 및 지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서 일부 학년을 제외한 사례도 나타났다.

대구 무상급식의 현주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시·도 교육청별 무상급식 추진 현황'에 따르면, 대구는 17억8천만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최근 출범한 세종특별시(32억5천만원)보다 14억6천만원이 나 적은 액수다. 특히, 대구 전체 급식학생 수는 35만1천여명이고 세종특별시는 1만2천여명이다. 또 대구는 전체 431개교 중 6.5%인 28개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해 전국 최저 시행률을 보였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해 지역 시민단체는 3만2천명의 시민 서명을 받은 '의무급식 주민청구조례'를 주민발의로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비롯한 핵심조항을 무상급식을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바꾸는 등 무더기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전면 무상급식의 염원이 순간의 희망에 그친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조례안을 심의해 수정통과시킨 대구시의회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대구의 무상급식은 올해 대구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598억원으로 학생 수 400명 이하인 학교에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400명 이하인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 439곳의 12% 수준이고, 학생 수로 보면 전체의 37% 수준이다.

전면 무상급식 불가능한가

대구에는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 18개 시·도 중 유일하게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소득수준을 따져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구시민들이 선별적으로라도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의 금융자산동의서와 부채증명서, 전월세계약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당초 눈칫밥을 먹이게 하지 말자는 무상급식 확대의 취지와도 상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재정부담을 내세워 전면 무상급식을 복지포폴리즘정책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의지가 확고하게 초등학교만이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교육당국의 변화를 바라기엔 역부족인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의 현실을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제는 새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쳐 온 우리복지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도 그 대안을 제시했다.

은 사무처장은 "새정부와 정치권이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책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타 시·도에서는 당연하게 이뤄지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시민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전향적으로 의지변화를 보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대한민국 1호점 대구 상륙

8월말 개점 앞두고 상인·유통계 벌써부터 촉각

230여년 전통을 가진 영국 데벤함스(Debenhams) 백화점의 대구 개점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데벤함스 대구점은 한국 1호이자 대구에서 외국계 백화점이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들어 개점이 가시화 되자 관할 지자체에서는 지역기여방안과 범어네거리 일대 교통정체 등에 대한 부분을, 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백화점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데다 보수적인 대구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



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패션·유통 전문 글로벌기업인 데벤함스는 오는 8월말이나 9월초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 더제니스 단지 1층 상가에 60여개 점포, 9천500여㎡ 규모의 대구점 개점을 위해 관할 수성구청과 행정절차를 거쳤다. 또 제니스 상가에 사무실을 열어 지난 1월11일부터 13일까지 브랜드 론칭 행사를 갖고 자체 기획·판매하는 60여개 브랜드를 선보였으며, 3월말까지는 50개 입점 점주 모집을 완료하고 상품 발주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 2000년 프랑스 백화점 백화점 철수 이후 처음 있는 외국계 백화점의 대구 개점이 가시화 되자, 지역 유통업체와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데벤함스는 패션과 생활용품, 화장품 등 고유브랜드와 함께 해외명품, 영국브랜드, 해외위탁 제품으로 매장을 구성할 예정이며, 매장의 40% 정도는 국내 유명 브랜드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글로벌 브랜드도 입점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게 데벤함스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유통업계에서는 한국적 정서를 토대로 한 한국화를 이뤄내지 못한 탓에 까르푸와 월마트 등 세계적인 유통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실패했던 전력을 내세우며 데벤함스 대구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성구청도 데벤함스 대구점 개점과 관련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백화점 인근의 범어신시장과 남부상가시장 등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과 반발을 비롯해 지역기여도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얼마나 많은 폭을 허용할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백화점 개점 이후 범어네거리 일대 교통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반면, 또다른 유통업계에서는 데벤함스가 취급 제품의 70%를 직매입 형태로 조달해 유통비용을 줄여 기존 백화점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과 세계적 디자이너들의 단독 상품을 취급하는 등 패션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벤함스 대구점의 전략이 성공하면 침체됐던 범어역 일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벤함스 대구점 광기철 본부장은 “기존 유통업계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독자적인 브랜드 차별화, 성공적인 백화점 사업을 위한 데벤함스만의 축적된 노하우, 독점판매를 통한 제품의 전문성과 합리적인 가격 등을 토대로 연간 1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백화점과 마트는 비교대상이 아닌데도 일부 지역언론에서 월마트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며 끼워맞추기식 추측을 하고 있다”면서 “제품 원자재로 대구의 섬유를 많이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는 등 지역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사진 | 김원현 기자



공정의 힘, 마쓰시타 고노스케

자본주의 경제의 세 가지 주요한 생산요소를 토지, 자본, 노동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주류경제학의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들 3요소 외 경영, 특히 '경영자'란 요소가 제4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기업의 성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우리는 한 명의 경영인이 기업 가치의 메인 척도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경영지널은 기업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경영의 전설들의 스토리를 연재한다. 그들의 경영에는 명과 암이 있었지만 부정을 극복하고 긍정으로 가려했던 경영의 전설들의 이야기가 미래 우리 경제와 기업을 위한 좋은 자양분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경영의 神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내쇼날(National), 파나소닉(Panasonic), 테크닉스(Technics), 빅터(Victor) 등의 브랜드를 히트시켰고 마쓰시타 전기를 연매출 5조엔, 임직원 19만명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마쓰시타 고노스케다. 그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神)'으로 추앙받는다.

30대 이상이면 내쇼날, 파나소닉이란 브랜드에 친숙하다. 80-90년대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전시장에서 맹위를 떨치던 일본의 대표브랜드로 국내시장에서도 단연 선망의 대상이었다.

마쓰시타는 1894년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마쓰시타는 훗날 간사이 상공학교 예과에 입학해 중간에 그만 두었던 학업을 계속 하려 했지만, 학교생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 2년도 지나지 않아 중퇴했다)학력의 이 경영천재는 은퇴 후 쓴 회고록에서 자신의 성공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다.

첫째,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부딪히며 많은 경험을 쌓았다는 점, 두 번째는 몸이 매우 허약해서 항상 적당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했다는 점과 세 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모두를 스승으로 여기고 배우는데 부지런했다는 점이 자신의 성공요인이라 밝혔다. 한 마디로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 성공의 요인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의 공정의 철학은 기업경영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1929년 대공황으로 계열사가 위기에 처하자 마쓰시타는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2일 휴무를 결정했다. 또 생산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임금삭감이나 정리해고를 통해 직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생사를 함께 한다는 믿음을 심어줬다.

마쓰시타는 '경기는 언젠가 반드시 좋아진다'며 긍정의 메시지로 직원들을 독려했고, 직원들 역시 마쓰시타의 긍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각오로 일했다. 오전에는 생산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전 직원이 제품 판매에 나선 덕분에 회사는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그리고 마침내 대공황의 위기를 통해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쓰시타 전기'는 1930년대 이미 사업부제와 주5일제 등과 같은 진일보한 경영방식을 시행했다. 또한, 평생고용이라는 일본기업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지며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절대충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마쓰시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반드시 길이 있다고 강조한다. 사소하다고 여기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에 새로운 길이 존재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그리고 설사 실패하더라도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궁리해야 한다는 것이 마쓰시타류(類) 경영철학의 핵심이다.

사람이 경영이다

30, 40년대 당시 일본은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이직이 많았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연공서열제와 종신고용제를 도입해 해결했다.

대공황이 휩쓴 1930년대, 심각한 불경기로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했지만, 마쓰시타는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았다. 2차 대전 패전 후 일본경제의 재건 역시 이러한 마쓰시타로부터 시작된 사람중심 경영의 힘이 컸음은 물론이다.

마쓰시타는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도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해 수많은 학술단체와 사회복지재단에 재산을 기부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일본사회의 사표로 존경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1979년 마쓰시타는 세습(世襲)의원이 판치던 일본 정계를 개혁하기 위해 당시 70억 엔(982억 원)의 사재를 들여 일본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마쓰시타 정경속'을 설립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마쓰시타 정경속 1기생이다.

마쓰시타 정경속은 매년 200명 내외가 지원하지만 합격자는 10명 이내에 불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수업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생활비 20만엔(약 280만원)을 교육생들에게 지원해준다.

일본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다는 마쓰시타 정경속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은 의외로 '청소'다. '자기주변도 청소 못 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청소할 수 있느냐'라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에서 나온 교육과정이라 한다. 마쓰시타 정경속 출신들은 현재 일본 정계의 주류로 올라섰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고다이 자전거포의 사환이 되었던 소년 마쓰시타가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고 일본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언제나 진지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의 태도가 있었다.

글 | 백재호 편집장

한 번 넘어졌을 때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백만 번 넘어져도 마찬가지다. 가능하면 한 번 만에 원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두려워해야 한다.

-마쓰시타 고노스케-



△ 택시업계가 2월2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였으나, 대구와 경북지역 택시는 동참하지 않았다. 사진은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줄지어 선 택시들의 모습.

택시법 논란 장기화 조짐, 해법은 없나

택시법 재의결 촉구 총파업도 불사 VS 특별법으로도 혜택 충분
택시업계와 정부 한치의 양보도 없어 사태 장기화 조짐
국민 65%가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찬성, 정치권도 눈치만...

택시를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포함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재의결 여부를 두고 정부와 택시업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명박 정부가 과도한 재정부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지원법'(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라는 특별법 카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택시법을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도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에 대해 당초의 회의적이었던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으로 태도를 바꾸면서 택시법 국회 재의결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가 택시법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이유와 택시법과 택시지원법의 차이점, 택시법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 등을 짚어봤다.

택시법과 택시지원법 차이

구 분	택 시 법	택 시 지 원 법
재 정 지 원	시설 확충개선 비용 등 전부 또는 일부 보조/용자	- 구조조정감차친환경 차량 대체 등 비용 전부나 일부 보조/용자 - 자동차 취득세, LPG 개별소비세 등 감면/경감
중장기계획	5년마다 세우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택시 포함	총량제 강화로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총량계획 수립
택시기사혜택	-	- 택시구입비, 유류비 등 운송비용 기사에게 전가 금지 - 장시간 근로 방지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 근거 마련
기 타	준공영제 환승할인제 등 지자체가 대중교통에 주는 혜택 요구 가능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택시법 VS 택시지원법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가 요구하는 택시법과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의 차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택시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지정된다 해도 당장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가세 환급과 유류세 감면 등으로 연간 7천여억원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택시가 포함된다.

김기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정책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운송에 나서고 있는 택시를 우리나라 대중교통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바꿀 택시법이 꼭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해 온 정부가 이제와서 택시법의 대안이라고 발표한 택시지원법은 새로운 정책이나 진실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택시지원법은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이 들어 있다. 구조조정과 감차, 조세 감면 등이 그것이다. 또 중장기 대책을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총량계획을 세우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택시기사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사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안도 마련했다.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세계적으로도 입법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대중교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될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법체계나 교통정책 수립, 집행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택시지원법은 택시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이며, 택시 종사자에 대한 운송비용 등의 전가금지 및 복지기금을 통한 건강검진, 자녀교육 등 택시기사가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택시법, 문제는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막대한 재정을 택시에 투입하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대중교통 환승할인에서부터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버스전용차로 진입, 영업손실 지원(준공영제), 공영차고지 지원, 차량시설 지원 등을 택시업계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연간 1조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의 80%인 연간 8천억원가량이 소요되는 영업손실과 대중교통 환승할인에 대해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면 택시업계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자신들에게 돌아올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업

계에서 법 개정에 반대한 핵심 이유이며, 대중교통 지원에 있어서도 전체 지원액의 80%를 부담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해보니 택시가 대중교통이 되면 서울시의 경우 3천억원, 울산은 800억원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한다. 결국 혈세 투입액 1조9천억원이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만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택시법이 통과되면 1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는 버스업계의 준공영제와 환승할인 예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택시법에는 준공영제나 환승할인제 관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수송분담률 30~40%를 차지하고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여론은 싸늘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경쟁의 구조를 스스로 개선해 경영난을 이겨내겠다는 의지 없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려는 택시업계에 대한 반감이 높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승차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택시업계의 총파업이 있던 2월20일 대구의 한 택시에 택시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검정색 리본이 나부끼고 있다.



△ 택시법이 통과되면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도 택시가 24시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 버스업계는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택시법 재의결을 반대하고 있다.

KBS가 1월22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에 달했다. 반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거부권 행사의 주요 근거로 삼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선 찬성 29.8%, 반대 60.2%로 반대 의견이 2배 가량 많았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새로운 택시지원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한 결정’ 64.3%, ‘잘못한 결정’ 22.3%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을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21%에 그친 반면, 정부의 대체입법인 택시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70.2%로 나타났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선진화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포퓰리즘에 불과한 택시법을 폐기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막연하게 택시에 대해 국민혈세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택시운행대수의 구조조정과 택시요금의 합리적 인상으로 대처함이 옳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택시법 재의결을 약속했던 여야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택시업계와 정치권이 막판 협상까지 벌였으나, 정치권이 2월 국회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결렬돼 결국 택시 총파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재의결’을 강행하려던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체입법을 우선 고려하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의 택시법 강행처리 방침에 비판적인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택시 지원책

택시업계에서는 택시법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전국의 택시가 동참하는 파업까지 계획하고 있다. 지금의 분위기라면 택시법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부와 택시업계가 상호 인정하고 수용할 만한 지원책을 고민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변화이다.

개인택시는 자영업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 뻔한데, 정부가 택시법 대신 특별법을 통해 택시업계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택시업계가 정치권을 압박해 집단 이익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택시운전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임금 수준은 개선을 통해 택시가 불친절하고 과다요금을 챙기는 교통수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택시정차장 및 택시 대기 공간 확충 등 시설개선과 택시운전기사 자격 강화, 처우 개선, 별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정병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택시업계 스스로 구조조정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자구노력을 보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금 전액관리제 등 택시기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특히 공급과잉으로 택시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만큼 택시 감차와 그에 따른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는 정부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imcheon 2013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The 51th Gyeongbuk Sports Festival

2013. 5.10~5.13

김천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 성화봉송 | 2013. 5. 9(목)~5.10(금)

| 개회식 | 2013. 5.10.(금) 17:30

| 폐회식 | 2013. 5.13.(월) 16:30

열등하는 김천에서
기초는 경북의 꿈!
이상하는 경북의 꿈!



사업자의 스타일과 회계 · 세무이야기

가정과 달리 사업에서 회계와 세무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사업에서 회계는 매출과 매입, 관리비 등 거래의 모든 증빙을 보관하고 기록하고 요약해 보고하는 절차다. 이때 만들어지는 서류들은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며, 개인 가정의 가계부와 달리 많은 사람이 약속한 표준화 된 양식과 기준이 필요하다(한국기업회계기준). 더 나아가 현대 사회는 국제 거래가 일상화돼 있어 많은 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약속된 양식과 기준으로 작성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회계자료는 곧 세무자료와 같다.

회계와 세무는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경영자입장에서 대출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재무상태가 안정적이고 수익률은 높은 재무제표(재무상태 표, 손익계산서 등)를 원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률이 높은 재무제표는 세금 부담이 가중되므로 세무에서는 불리해진다. 이와 같이 회계와 세무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탓에 다양한 법률로 강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년간 회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자 유형을 스펙트럼이 크고 다소 급한 성격(A유형)과 꼼꼼하고 침착한 스타일(B유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A유형의 사업자는 탁월한 돌파력과 추진력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늘 현재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와 세무측면에서 바라보면 많은 약점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증빙 자료를 거래시점에서 챙기지 않아서 나중에 기억을 못 하거나 일을 추진하기만 하고 사후 관리는 직원에게 일임하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B유형의 사업자는 모든 거래와 동반해 증빙 자료를 챙기고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는 덕분에 세무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A유형의 사업자에 비해 성장속도는 현저히 느리다. 물론 필자와 같은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는 B유형이 일하기 수월하므로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어서 A유형의 사업자 또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다소 A유형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겠다. 기업이 많이 성장하여 일정규모 이상에다 사업의 성장 속도가 주춤하거나 정체된 경우에는 반드시 B유형의 사업자가 되거나, 회사 내에 제대로 된 관리부서를 유지해야 갑작스런 회계와 세무상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또, 사업이 일정 규모 이하여서 경영자가 많은 것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의 회계와 세무자료는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더불어 기업이 성장하여 상장을 준비하거나 외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 수준 높은 회계조직을 유지해야 한다. 경영자 스스로도 습관적으로 회계자료와 세무자료를 확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전산을 활용한 정보의 분석이 너무나 활발해 경영자가 상상하지 못하는 회계와 세무자료가 느닷없이 나타나 당황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경영자의 깊이 있는 회계와 세무지식은 필수이며, 관련자료의 관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윤기태

경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농촌지역 폐교실태와 바람직한 활용 방안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교과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경북지역에서도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학교가 이미 통·폐합이 되는데다 2016년까지 370개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돼 농촌지역의 폐교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촌지역에서 폐교가 갖는 의미는 비록 교육적 기능을 상실한 유휴공간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본래 농촌지역 학교가 가진 공간적·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농촌지역주민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삶과 어우러진 공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폐교가 차지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지리적·정서적 상징성과 지역활성화 차원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경북지역 폐교처리 및 활용현황

지역명	총 폐교수	처리종결			현재 활용현황			조사시점 미활용 현황(활용 추진중)
		매각	반환	계	자체활용	임대(대부)	계	
포항	37	19		19	4	10	14	4
경주	36	13	1	14	4	14	18	4
김천	36	25		25	2	4	6	5
안동	56	47		47		8	8	1
구미	16	8		8	2	5	7	1
영주	27	18		18	3	3	6	3
영천	30	12		12	2	10	12	6
상주	40	21		21	3	13	16	3
문경	29	22		22	3	2	5	2
경산	8	1		1	2	3	5	2
군위	23	11	1	12	4	4	8	3
의성	53	31		31	3	18	21	1
청송	27	15		15	2	10	12	
영양	30	20		20	1	9	10	
영덕	34	20		20	2	8	10	4
청도	21	13		13	1	6	7	1
고령	15	9		9		3	3	3
성주	18	14		14		3	3	1
칠곡	8	4		4	1	3	4	
예천	33	23	1	24	4	4	8	1
봉화	31	19	1	20	3	4	7	4
울진	29	22		22	4	2	6	1
울릉	7	4		4	1	1	2	1
계	644	391	4	395	51	145	198	51

※ 자료 : 경상북도교육청, 2012년 3월말 기준

농촌지역 폐교는 건립 당시 정부예산만으로 부족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설립된 경우가 많다. 2010년 농림부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폐교 25곳을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기부한 경우가 23곳에 달했다. 경북지역도 폐교 241곳 중 주민의 학교부지 기부로 건립한 학교가 118곳으로 나타났다. 기부를 통해 건립한 학교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의 폐교시설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발생할 폐교시설의 활용은 '폐교재생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 폐교시설을 활용할 길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건전용도로 활용하는 폐교시설의 대부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활용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 교육청에서는 매각, 대부, 자체활용, 철거, 미활용 보존 등으로 처분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은 배제된 채 일괄처분 및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들은 도서 및 농촌 벽지 등에 자리잡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작다. 그래서 보존에 따른 행·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폐교가 방치되는 경우 쓰레기 무단 투기장, 청소년 탈선 장소 등으로 악용되고 주변 경관 훼손, 화재 위험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그리고 활용 중인 폐교도 개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대부로 고질체납, 계약해지 후 무단점유, 대부 후 수의매각 요구, 과도한 시설투자 후 사업실패로 소송 제기 등 관리상 어려움 및 행정력 낭비를 불러오고 있으며, 매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폐교가 발생하는 현상은 막아야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폐교가 발생한 경우, 애초 해당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던 공간적·정서적·문화적 위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 폐교활용이 활성화하려면 주요 관련 주체들의 폐교 활용과 관련한 관심과 역량이 제고돼야 하고, 정부 차원의 폐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 폐교 문제의 심각성,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인식하고, 폐교활용과 관련한 종합 계획과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농촌지역은 고령화 탓에 지역 내에서 폐교를 활용할 만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적 식견,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지역인사(지역행정가, 예술가, 교육자, 관광전문가 등)를 발굴해 지역주민과 연계·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폐교매각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시설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부지·건물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폐교사용의 사가 없어 매각하게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 전용되지 않게 하려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 일방적인 매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교의 활용은 '폐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자'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폐교가 갖는 위치와 기능의 변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폐교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행정계획 수립,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활력과 주민복지,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 새로운 도전! 2013년 국제 마라톤 대회 공식 유니폼 후원



2013년 발렌키 전속 모델
양정아·김민성



펼쳐 무리없는 대회 진행에 크게 기여를 했다. 또 이를 통해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전년 대비 16.3%나 감소시키는 결과도 낳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그해 TBN대구교통방송으로부터 '교통문화상'까지 수상했다.

현재 양 계장은 교통분야만큼이나 스스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경무계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일반기업으로 치면 총무부서와 홍보부서를 합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면 된다. 대구경찰청의 의전과 행사에서부터 경찰관 복지후생, 인사관리, 복무기강 확립, 유치장 감독, 언론 홍보 등 당장 빛은 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그래서 양 계장은 경찰조직의 원활유와 같

경찰조직의 **윤희유**, 양시창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계장 우리사회의 해피바이러스

2011년 여름 대구와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아직도 대구시민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내 대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껏 치켜올렸다는 자부심도 물론 있다. 대구육상대회의 성공 개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준 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당시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으로서 세계 이목이 집중된 큰 대회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을 준 양시창(45) 대구경찰청 경무계장도 그같은 구성원 중 한명이다.

경찰대학교(6기)를 졸업하고 1990년 3월 경위로 경찰조직에 발을 디딘 양 계장은 유독 교통분야에서 소임을 많이 맡았다. 2004년 대구 동부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을 시작으로 중부서 경비교통과장,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등의 이력은 대구세계육상대회에서 빛을 받았다. 참가국 202개, 참가선수 1천945명, 관중 44만6천305명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이 역대 최대규모를 자랑할만큼 각국에서 대구로 몰려들었다. 이에 양 계장은 대회 교통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중심의 친화적 교통안전활동을

은 역할을 하고 있다.

양 계장의 앞으로 계획도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묻어있다.

“2월25일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최대 정책지향점인 국정비전이 바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4대약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조직 또한 국민이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여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저 스스로도 대구시민들에게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감사나눔운동의 참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포항시 감사나눔연수원을 가다



△ 박승호 포항시장이 감사 연수에 참가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머리 위에 하트 모양을 그리며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

포항시의 감사나눔운동이 대한민국 행복운동으로 널리 전파되고 있다. 관공서부터 일반기업, 학교현장, 종교단체, 군부대, 교도소까지 작은 변화들이 일기 시작해 이제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범국민운동으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3월 포항시가 도입한 감사운동은 매일 감사할 일 5가지 쓰기(감사노트), 감사 편지쓰기, 전화·메시지(SNS)로 감사 표현하기 등 경청과 칭찬, 배려, 긍정 등의 감사 바이러스를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 전파시키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감사운동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기에 이르렀고, TF팀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불씨를

전할 감사멘토 35명을 선정해 감사 바이러스 전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불어 감사나눔연수원에서는 감사운동을 전국에 퍼뜨려 줄 희망의 불씨를 꾸준히 양성해내고 있다. 감사나눔연수원의 뜨거운 교육현장 열기를 들여다봤다.

새해 첫 감사운동의 시작

지난 2월5일 한기를 가득 머금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해풍과 함께 뒤섞여 불어닥친 구룡포 석병리 포항시청 소년수련원. 감사나눔연수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오후 1시가 다가오자 해맞이관 지하

1층 교육장에 100여명의 포항시 간부공무원들이 몰려들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 감사운동'을 주제로 하는 올해 첫 감사 연수를 받기 위해서다. 감사운동 도입 이후 1년간 교육을 받아왔지만, 새해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접하는 간부공무원들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전문 컨설팅강사의 레크리에이션 분위기 속에 진행된 교육은 1박2일 내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부터 불평, 불만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인식과 이를 습관화 하는



△ 감사나눔연수원 전경.

방법, 감사를 표현하는 전문적인 방법 등 자칫 지루하고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물 흘러가듯 재미있게 풀어내는 강사에게 수강생들은 폭 빠져 들었다.

오후 9시 이후 특별히 마련된 '함께 만드는 감사시간' 프로그램에서는 전 교육생이 하나가 돼 각자의 촛불을 들고 1분간 서로 칭찬하기, 포옹하기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나눌 때에는 가슴 찡한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또한, 각자의 촛불로 하트를 만들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만남'이라는 노래를 합창하며 소통하고 감상하는 시간도 이어졌고, 과일과 영일만친구 막걸리가 가득 든 감사바구니로 또 한 번 진한 동료애를 나눴다.

이튿날에도 교육을 받은 간부공무원들은 연수원 앞에 마련된 8.7km의 감사나눔둘레길을 탐방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대 있어 감사합니다'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에 참가한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웃으며 동료에게 감사를 나눌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며 "진정한 감사와 나눔, 소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소



△ 감사나눔 돌레길을 탐방하고 있는 포항시 공무원들.

중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지난해에 감사운동을 왜 펼쳐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감사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마인드 정립과 감사운동의 전문기법이 교육내용의 다수를 차지했다”면서 “감사운동은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정신운동이며, 그 운동이 감사나눔 연수원에서 꽃피우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운동의 모든 것이 있는 곳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명월길 51에 위치한 감사나눔 연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만4천5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강사로부터 감사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해맞이관(3층 규모)과 갈매기관(2층), 해송관(1층)으로 이뤄진 감사나눔연수원은 32개의 객실에서 270명이 한꺼번에 숙박할 수 있으며, 여름철이면 200명이 동시에 야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여기에는 3개의 세미나실과 강당, 야외공연장, 서바이벌게임장, 산악자전거도로가 갖춰져 있고, 감사나눔돌레길도 조성돼 있다. 특히, 감사, 명상, 나눔, 긍정, 행복의 길 등 5개 주제로 이뤄진 감사나눔 돌레길은 연수원을 찾는 이들에게 사색과 명상을 제공하는 이색 웰빙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정숙 감사나눔TF팀장은 “전국 지자체와 학교, 기업 등지에서 끊임없이 감사운동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데, 감사나눔연수원에서 감사운동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다”며 “감사나눔연수원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성장하고 있는 감사운동의 메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새마을운동, 감사나눔운동

포항시가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사나눔운동은 최근 정부의 국정지원 모범사례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고, 지난 1월에는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인성교육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 각종 다과로 가득한 감사바구니로 동료애를 나누는 모습.

대한민국 1호 인성교육 우수도시라는 영예를 포항시에 선사했다.

출발은 2011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승호 포항시장이 포스코ICT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감사나눔운동을 접했고, 허남석 대표로부터 감사운동의 효과와 추진방법을 듣고 곧바로 포항시에 접목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감사운동은 포항시 공무원에서부터 국내 기업, 일본과 중국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됐고,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커지자 포항시는 기관단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감사 힐링캠프를 연중 운

영하며 감사멘토 육성, 감사 시범학교 운영, 감사대상 시상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감사노트, 엽서, 편지쓰기 등을 유도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에도 크게 기여해 타 지자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박승호 포항시장은 “감사나눔운동을 세계적인 기업 사랑운동의 민관합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 전문컨설팅 강사로부터 놀이를 통한 인식개선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포항시 간부공무원들.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도시를 만듭니다”

친환경농업의 선봉, 포항시농업기술센터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올 한 해도 포항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가수 최백호씨의 대표 히트곡 ‘영일만 친구’. 포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났다. 포항시는 기존 10년 이상 사용해 온 ‘영일촌’이란 브랜드를 버리고, 새로운 시장환경 요청과 효과적인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 ‘영일만 친구’를 택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이하 포항농기센터)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햇살을 담은 맑고 깨끗한 농·특산물 브랜드의 전국 석권을 위해 도시브랜드 마케팅 활동으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통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파수꾼

포항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불린다. 2012년 12월 말 기준 2천236 농가가 1천592ha의 면적에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 전체 경지면적 1만4천300ha의 11%에 해당하는데, 경북도내 타시·군 평균이 6~7%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가운데서도 유기농산물이 7%가량인 104ha이고, 무농약농산물이 49%(774ha), 저농약농산물이 45%(719ha)에 달하며, 무농약 이상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모두가 웰빙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는 포항농기센터의 저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죽장 산사과 탐프루트 시범단지이다. 탐프루트 프로젝트는 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해 우리나라 과일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가

장 맛있고 안전한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 전국탑푸드 시범단지 종합평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이 사업을 통해 죽장 산사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과일 반열에 올랐다. 포항농기센터의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농민의 노력과 기술이 한데 모여 결실을 본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죽장산사과 친환경인증회 시범단지는(회장 최해관) 41명의 회원은 60ha의 면적을 일궈고, 회원들이 생산한 사과 전량은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유통센터를 통해 생산과 출하를 완전히 분리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포장지에 QR 코드를 부착, 스마트폰으로 매장에서 유통과 생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대원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매월 개최하는 현장 컨설팅을 비롯해 맞춤형 현장 교육, 선진농장 방문교육으로 기술과 정보를 교환, 포항 사과의 재배 기술과 높은 품질 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농기센터의 친환경농업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생산 초기 단계부터 재배방법과 기술을 통일해 공동생산과 같은 방법으로 삼광벼 단일품종으로 고품질을 이뤄낸 친환경 브랜드 쌀 또한 전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포항농기센터와 농협, 12개 친환경쌀 작목반이 일궈낸 ‘자연의 쌀’ ‘미락 우렁이쌀’ ‘이팝쌀’ ‘친환경 메뚜기쌀’ 등 친환경 브랜드 쌀은 G20 정상회의 만찬에 공급되기도 했고, 서울지역 학교급식센터와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도진 포항농기센터 소장은 “사과와 친환경 쌀 외에도 해풍 시금치, 포항부추, 비학산 청정 미나리 등 지역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여 줄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해왔고, 지난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는 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과 유통구조 개선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생활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한 목표

지난해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 정책을 펼쳐 ‘강소농 성과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



△ 포항시농업기술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도진 소장

는 포항농기센터. 농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포항농기센터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촌노인의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기반 조성과 더불어 농촌노인에게 건강·환경·경제·사회화 프로그램을 접목해 건강장수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신광면 죽성 1리 건강장수교실을 비롯해 고구마 육묘장 및 체험장 운영 등 6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1천 50여명의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돕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청하면 유계리 건강장수교실과 숲 산책로 조성, 지방보도 설치와 더불어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 등 농촌어르신들의 문화·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도진 소장은 “장수마을 사업 외에도 포항농업대학을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농업정보와 새로운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사과, 한우, 경영, 귀농·귀촌, 도시소비자 등 5개 과정의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마을 세계화 보급사업 1호 지역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기아해결을 위해 벼농사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벼 시범재배를 시작하는 등 우리의 영농기술을 세계로도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 김원현 기자



2013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Cosmetics & Beauty Expo, Osong Korea 2013

2013.05.03. - 05.26.
충북 KTX 오송역 일원

주제전시(월드뷰티관·생명뷰티관)	화장품 할인 판매(20~60%)
화장품 미용용품 전시	뷰티체험 / 미용 및 피부 상담
바디페인팅쇼 / 뷰티쇼	어린이뷰티직업체험 / 세계뷰티인형관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 생명의 땅 오송, 아름다움을 깨우다.



www.osongbeautyexpo.kr

Tel +82-43-249-4523 Fax +82-43-249-4519

충청북도 · 식품의약품안전청 · 청주시 · 청원군

홍보대사 박은혜

대한민국에서 즐겁고 활기찬 노년 보내기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복지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수명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각종 뉴스매체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노인관련 문제를 알리는 기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사업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수요를 충분히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예산도 부족해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노인

고려시대의 노인예우제도를 살펴보면, 고령자에게는 노인봉사자인 '시정'을 두게 했고, 서민으로 나이 80세 이상이 되면 소사(所司)의 관직을 줬다. 60세가 되면 노역을 면제했고, 노인을 봉양하면 균역을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은 사회에서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일부 노인들은 노인정, 노인교실 등을 통해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5천40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무려 516만명이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1.7%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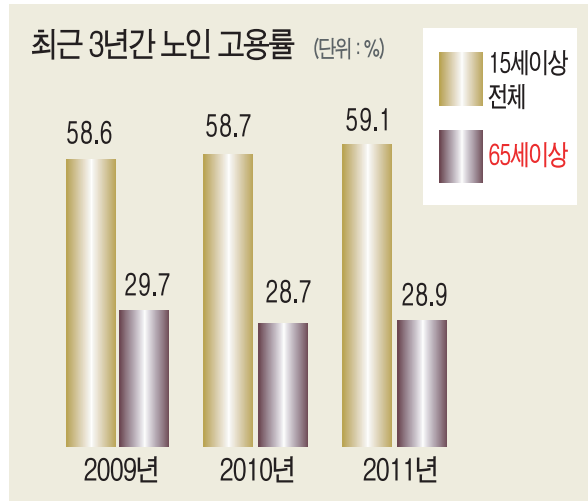
의료와 보건의 발달로 노인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노인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및 문제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 취업과 일자리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4명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울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독립, 퇴직 등 주변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의든 타의든 60세에서 65세 사이에 퇴직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소외감과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퇴직자 대부분은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는 제2의 직장을 찾아 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불경기 속에 60대의 취업률(12.5%)이 20대(12.0%) 보다 높다는 조사는 60대 이상의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계획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은 홀몸노인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대한 일회성 사업이 주를 이뤘다. 최근 들어서는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군을 증가시키는 추세로 종전의 양상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의 변화

과거 노인들의 일자리는 공공근로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파지수집 등의 다른 세대가 꺼리는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했다. 요즘에는 봉사와 교육활동 등으로 그 폭이 넓고 일자리의 질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과거 공공근로 수준의 사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TV에 등장한 한 공익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소통 부재의 시대 실버(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복원하고자 기획한 캠페인 '실버톡(Silver Talk)'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마련한 실버톡은 실버세대가 가진 지혜와 다양한 경험, 인생 노하우 등을 젊은 세대에게 전한다. 또 세대 간의 협동을 통해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으나, 자신의 만족 혹은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 부류는 금전적인 부분보다 정신적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노인들의 성향과 맞물려 실버톡은 주목받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관심을 두는 추세이다.

사회의 관심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늙어서 집에 있지 않고 일을 하는 노인에 대해 젊은 층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일을 통해 건강과 행복함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다. 노인의 건강과 복지는 더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건강한 노년, 즐거운 노년을 위해 무상으로 금전의 지급보다는 일부 원하는 노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직업과 일자리를 알선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글 | 김기철 편집위원

100% 사과 원액만을 발효하여 빚어낸 고품격 사과와인 '상떼마루' 탄생!

소백산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영주사과와 최첨단 양조기술의
결합으로 창조된 최고의
사과와인 '상떼마루' 는
깊은 향기와 품격 그리고 건강을
여러분께 선사할 것입니다.





△ 박우용 공인노무사(가운데)가 '생각'을 뜻하는 혜음이란 이름의 노무법인을 함께 이끌고 있는 조상우 노무사(오른쪽), 김민수 노무사와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우용 노무법인 혜음 대표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CPL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 아직 생소한 편이지만, 변호사만큼이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존재다. 고용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단이 돼 원활한 소통을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양자 간 빚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중심의 기형적 산업구조 탓에 고용환경이 열악하고 관련 법 기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은 대구에서는 더욱더 공인노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중심에 세울 것이라는 뜻을 담아 설립한 노무법인 혜음을 통해 지역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을 돕는 박우용(36) 공인노무사를 만났다.

Profile_

- 청구고
- 아주대 경영학과
- 경북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2013~)
- (주)리바트, (주)엠씨넥스 근무
- 세종법학원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강사 역임(2010)
- 한림법학원 인사노무관리론, 경영조직론 강사 역임(2011)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고객 권익보호담당관(2012~현재)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컨설턴트(2012~현재)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2012~현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한국지식텔러협회 지식텔러
- 한국경영자총협회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 강사
- 전 노무법인 일송 책임노무사
- 노무법인 혜음 대표노무사

사람이 먼저인,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노사관계전문가

사람을 생각하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박우용 공인노무사는 서울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했다. 동료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직원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때 깨달음이 있었다. 조직이 재무적인 관점에서 직원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직원들은 행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갈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기업 또한 경쟁우위를 갖추기 어려워 도태되고 말 것이고 판단했다.

기업의 인적자원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유지하는 방법, 즉 ‘사람중심 조직(Human-Oriented Organization)’을 만들고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것이 바로 HR 분야 전문가자격사인 공인노무사였던 것이다. 이후 박 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동 관련 법령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노동법은 근로자들만을 위한 법률’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했고, 지역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유지를 위한 발전적 HR 시스템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람을 늘 생각하다 보니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방이 이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변호사의 소송업무와는 달리 노무사는 양 당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노무사법에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문자격사 중 관련법령에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노무사뿐입니다.”

HR 분야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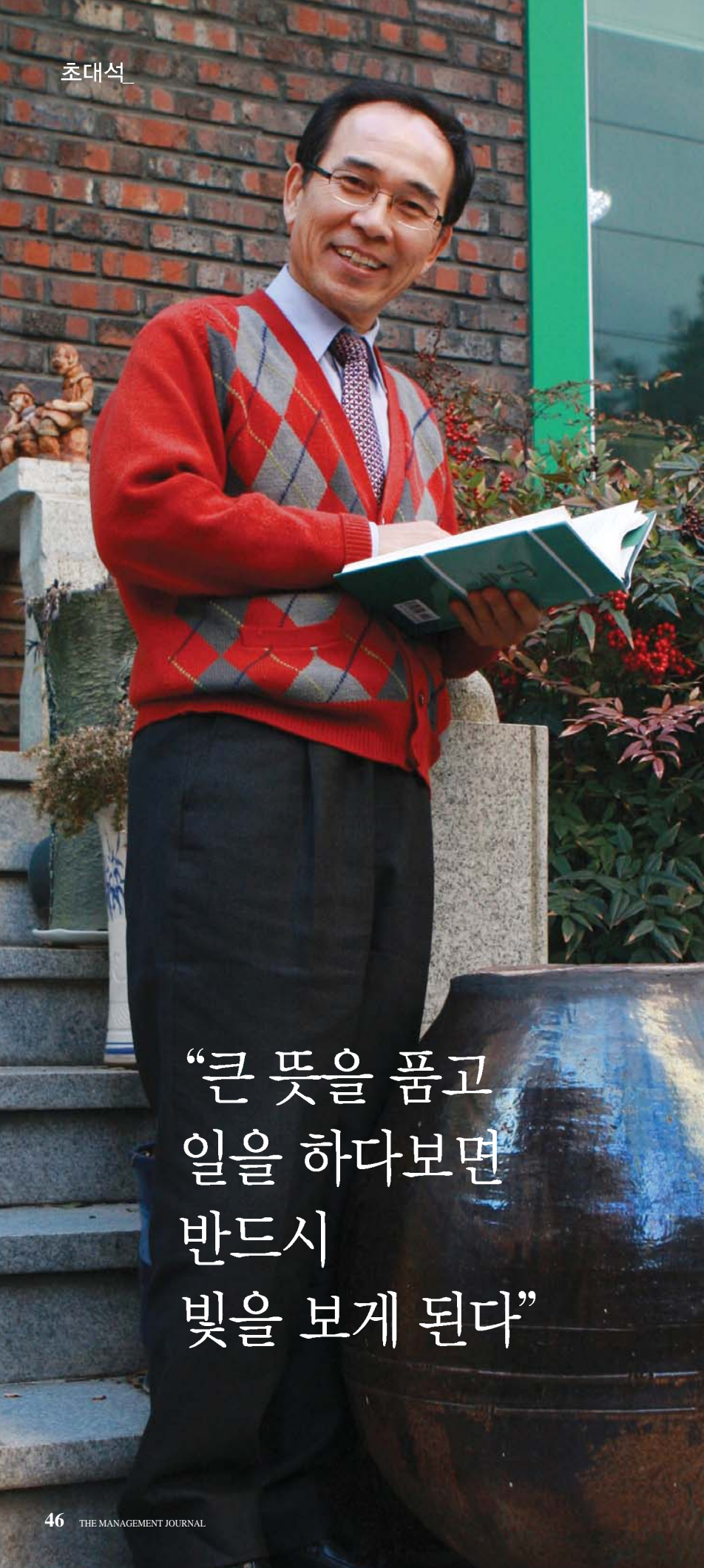
박 노무사는 서울 신림동 고시촌 법학원에서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론을 강의한 데 이어 지역 기업체의 경영자와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텔레협회에서 직접 교육을 받

고 지식텔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분야여서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대는 노동분야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처지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지난해 ‘떡보의 하루’라는 떡 케이크 브랜드로 유명한 (주)떡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결과까지 낳았다.

“도산이나 파산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될 때 임금과 퇴직금의 일정한도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비롯해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 2010년 12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전면 적용 등 알려 드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고자 노동법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있어 법적 최저기준의 충족을 위해 근로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과 노동의 중심은 사람이고, 그들의 소통과 상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 | 배준수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김창구

법학박사 · 시인

60여년 전에 경북 경산시 용성에서 태어난 남자와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경남의 여성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한국전쟁이 나자 당시 이북땅이었던 강원도 철원에서 서로를 잃어버렸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우여곡절 끝에 재회했고, 용성면 남자의 고향마을 창구(동사무소를 지칭)에서 사내아이를 잉태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창구'로 불렸다.

지금은 대학 교수로, 시인으로, 로펌의 공증업무를 책임지는 사무국장으로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자신이 익힌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국장 김창구(59) 법학박사다. 시인이기도 하다.

독학으로 40여년간 법공부에 매진해 박사가 됐고, 그것을 활자화 한 책이 법학도와 법조들인에게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발명하는 발명가다'라는 슬로건을 명함에 새겨넣고 다니는 김 박사는 현재 자신의 모습은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만큼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와 책임의식을 갖자고 강조한다.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다보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

Q. 법학을 스스로 공부해 지금까지 이르렀다. 계기가 있었다.

A. 자인농업고등학교 시절 공부보다는 운동이 좋았고 친구가 더 좋았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던 중 수학여행에서 친구가 숙소의 기물을 파손했고, 담임 교사는 퇴학처분을 운운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내가 2시간을 빌었다. 선생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며 “너는 공부만 하면 장관도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아이들과 놀기만 하느냐”면서 어깨를 두드리주셨다. 그때 충격을 받았다. 별명이 돼버린 ‘장관’이 하고 싶었고, 공부를 하고 싶었다. 지금에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품었던 큰 뜻을 갖고 매진하다보니 빛을 보게 됐다.

또 스스로를 단련하고 노력하는 일을 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마한 결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내 좌우명이 홍지필휘(鴻志必輝)와 자강불식(自強不息)이다.

Q. 공부는 어떻게 했다.

A. 군대를 하사관(지금의 부사관)으로 제대한 뒤 5일 공부하고 행정직공무원 시험에 떨쳐 합격했다. 그런데 발령이 곧바로 나지 않았다. 발령을 기다리며 든 책이 법서(法書)다. 그런데 민법이 너무 어려웠다. 그 책을 쓴 서울대 박윤직 법대교수를 무작정 찾아갔고, 조르고 졸라 청강생이 됐다. 훗날 민법을 전공한 계기가 됐다.

Q. 박사가 되기까지 과정은 어떠했다.

다시 공부한 지 6개월만에 법원서기보에 합격해 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공부에 미련이 남아 3년만에 법원을 떠났다. 경남대 법학과에 들어갔지만 공부에만 매진하는 남편을 보며 쌀이 떨어졌다며 우는 아내를 모른체 할 수는 없었다.

책을 불사르고 돈 벌기를 결심했지만 막막했다. 법학에 회의를 느끼던 37살에 경영대학원에 들어가 그제서야 약간의 돈을 벌었고, 석사학위를 받고서는 비로소 교단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법학에 대한 미련을 버릴수는 없었다. 이후 매일 자정에 집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에 매진한 결과, 민법 개정을 주장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2010년 8월21일 취득했다.

또 박사 논문과 실무를 연결한 책 ‘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실무편람’을 집필했는데, 법원재판자료로 선정되는 우수도서로 인정받아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기도 했다.

Q.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A. 2009년 시사랑문학신문을 통해 ‘하늘 울타리’라는 시로 등단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싶어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Q.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과 국제인권우호연맹 등 학교와 인권과 관련한 활동도 활발한 이유는.

A. 고교시절 공부를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후회가 돼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학교폭력 선도강연도 8년간 이어왔고, 학교폭력해결과 교권확립, 인권관련 논문도 많이 발표했다.

Q. 40여년간 갈고닦은 법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A. 법을 모르는 서민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봉사할 기회가 온다면 더 없는 기쁨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가까운 장래에 청소년 비전스쿨을 운영하려고 한다.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비전을 심는 일이다. 비전이 있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어는 토론회에서 전국의 8만여명되는 결식 아동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지금 무상급식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처럼 지금 청소년의 95%는 비전이 없다. 이들에게 비전을 심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특수 교육은 절대적이다. 그리고 멀리는 내가 살고 있는 경산시를 잘사는 도시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글 · 사진 | 배준수 취재팀장

경영자널은 단순하게 맛집을 소개하는 수준의 전면 일률적인 음식점 정보를 뛰어넘어 고객, 독자의 입장에서 맛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음식평가(飲食名家)' 연재를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기획재정부 소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지표로 제시한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을 활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시설과 의사소통 등 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외형적인 단서인 '유형성'을 비롯해 서비스의 철저함 등 약속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응답성',

직원의 능력과 예절 업체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뜻하는 '혁신성', 접근가능성과 고객에 대한 이해 등을 내포한 '공감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겨 평가를 했다.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으면 별(★) 5개, 80점~89점은 별 4개, 70점~79점은 별 3개, 60~69점은 별 2개, 60점 미만은 별 1개를 부여했다.

경영자널 선정 음식평가 2호에는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황금네거리 인근에 자리잡은 한우전문점 '해덕한우'가 선정됐다.

100% 1등급 투플러스(++) 한우 갈빗살과 명이나물이 전하는 최상의 감동!

한우요리 명가 '해덕한우' ★★★★★



바다와 같은 큰 덕을 베푸는 마음으로

“해덕(海德)이란 이름에는 바다처럼 큰 덕을 베풀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최고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해덕한우 이준희(47) 대표의 경영철학이다.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12년간 영업했던 수성못 인근에서 지금 자리로 옮겼다.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쓴 것은 손님들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룸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고기전문점과는 달리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무장한 공간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특히, 주방을 오픈시켜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 주문한 메뉴는 신속하게 나오며, 손님들이 말하기전 종업원들이 불편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며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유형성’ 과 ‘신뢰성’, ‘응답성’ 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또한, 매장환경과 실내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유니폼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직원들이 메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춰 ‘확신성’ 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공감성’ 에서는 손님이 복직이되는 식사시간대에는 대기석이 다소 좁아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덕한우는 ‘유형성’ 에서 19점, ‘신뢰성’ 20점, ‘응답성’ 20점, ‘확신성’ 19점, ‘공감성’ 15점으로 평가받아 100점 만점에 총 93점을 받았다. 별 5개로 최고 등급이다.

명품 갈빗살의 진면목을 만나다

해덕한우의 주메뉴는 이준희 대표가 발품을 팔아 경기도 안성에서 직접 공수한 도축 소를 당일 정형(여분의 지방이나 고기를 잘라내 모양을 갖추는 것)한 갈빗살이다. ‘1등급 투플러스(1++)’ 가 선명한 쇠고기 이력 증명서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최고급 참숯에 달궈진 석쇠 위에서 살짝 익혀 육즙을 머금은 갈빗살을 비법소스로 저린 울릉도 특산물 명이나물 장아찌에 싸서 먹는 그 맛은 해덕한우가 아니고서는 감히 맛볼 수가 없다고 단골손님들은 입을 모은다. 여기애다 밀반찬으로 나오는 양념계장까지 더해지면 입안에 가득한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다. 명이나물



과 양념계장이 갈빗살과 만나 환상의 조화를 이룬 셈이다. 갈빗살과 함께 사랑받는 메뉴는 또 있다. 안창살과 토시살이다.

이 대표는 “좋은 한우와 최상급의 밀반찬 재료를 찾기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명품 한우고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한우고기 외에도 해덕한우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 된장국수와 송이쇠고기 찌개인데, 고기를 먹고 꼭 먹어야 하는 통과의례와 같이 굳어져 있다. 간수를 충분히 뺀 소금으로 담가 짜지 않고 은근하게 고향의 맛을 내는 된장찌개에 국수를 넣은 된장국수가 그렇고, 구이용 고기와는 또다른 맛을 내는 송이쇠고기 찌개는 진정한 ‘천하일미(天下一味)’ 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갈빗살 1인분 100g 1만8천원, 안창살 1인분 100g 2만3천원, 생고기 2만7천원~3만5천원, 육회 2만7천원~3만2천원 등이다. 점심메뉴로는 갈빗살 1만5천원, 돌솥밥 3천원이 있고, 추천메뉴로는 한우사골곰탕 8천원, 한우불고기 + 돌솥밥 정식 1만3천원 등이 있다.

글·사진 | 김원현 기자

해덕한우

-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951-6번지
- 연락처 : 053-768-7007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새로운 **전년**을 여는 **경상북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경북 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첨단명품신도시**'

**2014년, 30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웅도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사업개요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 · 예천군 호명면 일원
- 면 적 : 10.96km²(안동 6.34, 예천 4.62)
- 목표인구 : 10만명(인구밀도 100일/ha)
- 사업기간 : 2008~2027년
- 사업시행자 : 경북개발공사



동대구역 주변 확 달라진다

대구시,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본격 시동



△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광장조성 공사 시행전의 모습(왼쪽)과 2014년 12월 준공될 조감도. 대구시 제공.

동대구역 일대가 크게 변모하고,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동대구역의 환승편의시설 확충과 역세권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광장조성 공사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올해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의 개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광장조성 공사는 동대구역이 KTX 고속철도 거점역으로 주말기준 1일 8만2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1969년 건설된 고가도로가 노후 돼 안전을 위해 차량통제(3.5t 이상)를 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연장 565m, 면적 6만9천81㎡, 광장 2만3천767㎡이며, 사업비 1천476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동대구로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고 택시 승강장을 130면, 버스 승강장 양측 8면, 환승·환영을 위한 단기 주차장 50면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및 보행자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해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또 역 광장을 명품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공모를 통해 당선된 '淸景靑野' 작품을 선정해 상징조형물, 잔디광장, 바닥분수, 미디어 워터폴 등을 설치한다. 특히,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동대구 지하철역과 연계해 광장에 각종 문화행사, 이벤트 공연을 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안전하고 빠른 기간 내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사 중 대중교통 이용과 공사장내 설치되는 임시보행로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 | 김원현 기자

대구 남구청, 대구 기초단체 최초로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



대구 남구청이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자원을 스토리텔링(Storytelling)한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구청은 최근 남구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함께 남구 앞산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240쪽 분량의 '산(山), 대왕을 품다'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2005년 장편소설 '도모유키'로 한겨레문학상을 수상한 조두진 작가(매일신문 기자)가 집필했으며, 고려 왕건이 927년 9월 공산(지금의 팔공산)에서 견훤의 백제군에게 대패한 뒤 홀로 탈출해 앞산으로 숨어드는 장면에서부터 앞산의 화전민인 어리노인과 그의 딸 호류를 통해 자연과 농사의 이치를 깨닫고 사람에 대한 참사랑을 깨우쳐가는 과정이 책자에 담겨 있다.

또 책자를 통해 앞산의 고산골과 바위굴, 은적사와 안일사 등이 작가의 날카로운 역사의식과 매력적인 문체로 버무려져 상상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했다.



남구청은 지난해부터 앞산 자락길을 남구와 대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앞산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해왔다. 남구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의 유래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갖고 있는 작가를 접촉하는 등 작가선정에 심혈을 기울인데 이어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이 앞산의 구석구석을 직접 답사해 자료를 수집했고, 향토사학자 등을 통해 역사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책자는 남구의 각 동 주민센터와 대구시·구·군청, 학교 및 도서관, 대구시문화원 등에 500권 배부되며, 향후에는 CD와 다큐멘터리, 연극 등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임병현 남구청장은 “앞산의 브랜드 가치를 앞산을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찾아내는 스토리텔링만이 답이다”면서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인 작품인 만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김원현 기자 · 사진제공 | 대구 남구청



제3회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The 3rd Uiseong International Flying Kite Competition

안계면 위천둔치(경북 의성군)

3. 29(금) ~ 3. 31(일) 3일간



'꿈과 희망을 담은 하늘축제'

주요 프로그램

국제 창작연 시연, 전국연날리기대회, 연문화 발전 국제학술대회, 세계연전시회, KBS전국노래자랑, 전국민속씨름대회, 달집태우기, 오토캠핑, 전국 창작연 공모전

문의처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조직위원회 054)830-6359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담당자 054)830-6356

국제, 국내 창작연
공모 / 공모전 접수 :
대회 공식
홈페이지 참조



제1회
코리야의성스포츠키트
월드챔피언십 개최!!

주최: 의성군, 후원: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조직위원회, 후원: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부

2013 Uiseong Sansuyu Festival

제6회 의성 산수유 꽃 축제

기간 2013. 3.29(금)~4.7(일) 10일간
개막식 3.30(토) 11:00
장소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 마을
주관 의성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주요프로그램 축하공연, 산수유경기대회, 산수유등반대회, 평양예술단공연, 산수유스타킹대회, 산수유
가요제, 산수유동요대회, 고가음악회, 야간견기행사, 시낭송회 등 홈페이지 http://www.ussansuyu.kr/
문의처 · 의성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054)833-4998 · 의성군청 새마을문화과 054)830-6355

전통 연과 희귀 대형 연의 대향연

제3회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3월29일 안계평야 위천서 개막



△ 지난해 열린 제2회 의성국제연날리기 대회 모습. 의성군 제공

는 등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꿈과 희망을 담은 하늘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되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전통 연과 세계적인 희귀 대형 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장년층에게는 추억과 볼거리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제1회 코리아 의성 스포츠 카이트 챔피언십대회’를 열어 스포츠 연의 곡예비행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KBS 전국노래자랑과 실업팀초청씨름대회, 달집태우기, 오토캠핑장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대회에 앞서 3월16일에는 대구 수성못에서 제3회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성공 기원 특별 홍보전도 벌일 계획이다.

김복규 연날리기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이번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는 두 번의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 전문가를 초청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열어 환상적인 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가 개막하는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10일간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마을에서는 ‘산수유꽃축제’가 함께 열려 연날리기대회를 찾는 이들에게 또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기원제를 시작으로 산수유노래자랑, 소공원작은음악회 및 시낭송공연, 산수유스타킹대회, 산수유꽃길걷기대회, 산수유등반대회, 고가음악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진다.

의성군은 3월29일부터 31일까지 안계평야 위천생태하천변에서 ‘제3회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는 3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성전국연날리기대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국내 연동호인 200여명과 25개국 150여명의 전 세계 선수들이 각 나라의 특성을 살린 대형 연으로 대회를 한층 빛낼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0개국에서 참가해 세계 각국의 연 300여 점이 전시되고 국내외 관광객들도 5만명이 찾

정리 | 김원현 기자



ISTANBUL-GYEONGJU
DÜNYA KÜLTÜR EXPO 2013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 9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경주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 행사명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 기 간 : 2013. 8. 31~ 9. 22 (23일간)
- 장 소 : 터키 이스탄불시까지 일원
- 주 제 : "길, 만남 그리고 동행"

- 행사 프로그램(9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
- 공 연 _ 한터 전통문화공연·오케스트라합동공연
- 전 시 _ 한국문화관, 예술교류전
- 영상·체험 _ 영화축제, 한터 전통문화체험
- 특별 행사 _ K-POP, 세계민속공연축제 등



한국정책리서치는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맞춤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입니다.



한국정책리서치는 2006년 설립 이래
100여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연구를 수행한 전문 조사기관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정책리서치

본 원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427-6 2F 203호 Tel) 054-823-2829 Fax) 054-823-2828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38-3 지하층 Tel) 053-721-6757 Fax) 053-766-0379